

지역 매아리

부안군, 양성평등 한마음대회 개최

부안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강애)가 주관하는 2019년 양성평등 한마음 대회가 지난 8일 부안실내체육관에서 여성단체 회원을 비롯한 관내 군민 및 내빈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양성평등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7명에게 표창패가 수여됐으며 다양한 이벤트와 체육대회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평소 지역의 숨은 일꾼으로 끊임없는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여성단체 회원과 전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우리지역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따뜻한 행복을 만들고 계시는 여성단체 회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미래와 세계 속의 부안을 만드는 데 모두의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여성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강애 부안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성장하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문화가 정착돼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드는데 여성단체 회원과 군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보장자력 확인조사 실시

정읍시는 국민 기초 수급자를 비롯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의 자격 유지 관련 하반기 확인조사를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집중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받은 2432건이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관련 변동자료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급여증가와 감소를 반영해 계속 보호 또는 중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복지대상자 중 급여감소 또는 자격정지가 예상되는 세대에 대해 결과를 사전에 통지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중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부정수급자는 신속하게 중지해 누수 되는 복지예산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양거부와 기피 등의 사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 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긴급지원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민간지원을 연계한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투명하고 정확한 확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 곤란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구제방안을 적극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보와 지혜 함께 나눈다

정읍시, 성북구청과 자매결연 체결... 상생 발전 도모

정읍시는 지난 8일 성북구청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북구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최낙삼 정읍시의회 의장과 임태근 성북구의회 의장, 시·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과 이 구청장은 자매결연 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양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두 도시는 ▲행정·교육·문화·체육 등 폭넓은 교류 ▲지방의

회, 공무원 및 민간단체 등 교류 활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양 자치단체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조 등 4개 협약과제에 합의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자치단체는 친선과 우의를 다지면서 각 분야별 교류와 우수시책 등의 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협정서에 열거되지 않은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공동번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교육과 외교의 중심지인 성북구와의 상생 협력 교류를 통해 시민의 삶이 한 단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두 도시가 정보와 지혜를 나누며 상생하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낙삼 의장은 환영사에서 "성북구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리다"며 "단순한 체결식에 그치지 않고 두 지역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전북 서남부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행정과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제2회 변산 노을축제에 오는 11일 전북도 대표관광지 부안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국내 대표 선셋 명소 변산 노을 속으로 '풍덩'

11일부터 이틀간 변산해수욕장 일원서 노을축제 개최  
맨손전어잡기·가야제·승마 체험·볼꽃놀이 등 다채

국내 대표 선셋(Sunset) 명소, 한국 팔경(八景)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름다운 '변산 노을'을 테마로 한 제2회 변산 노을축제가 오는 11일 전북도 대표관광지 부안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축제는 맨손 전어잡기, 승마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많은 관광객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11일에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노을가야제가 열리고 통기타, 전통무예, 벨리댄스, 미스트롯 세컨드의 공연이 펼쳐진다.

12일에는 오후 7시부터 문화의 성진우, 미스트롯 김소유 등 다양한 출연진의 축하공연과 화려한 볼꽃놀이 등이 마련돼 변산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잔잔

가을밤의 정취를 전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변산해수욕장 사계절 관광지 정체성 확립과 가을철 야영객,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에 위해 개최되는 이번 축제를 지역경제 및 대표관광지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일회성 축제에 그치지 않고 해마다 가을철이면 떠오르는 부안군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 테마인 '변산 노을'에 어울리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중 조장시 방문단, 고창군 찾아 깊은 우정 나뉘

중국 조장시 방문단이 고창군을 찾아 깊은 우정을 나누고, 향후 경제·문화교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8일 고창군에 따르면 3~6일(3박4일) 중국 산둥성 조장시 범위동 체육총회 비서장과 송해방 부구청장 등 8명이 고창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고창모양성제를 축하하고, 주요 산업시찰과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경제문화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난 4일 열린 방문단 환영식에서는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 김인석 삼보축염 대표, 박용석 국순당 부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가운데 양 도시 홍보동영상 시청, 교류실적 보고, 인사말씀, 선물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방문단은 북분자농공단지(참바다), 매일유업, 상하농원, 황토배기유동공사, 배리&바이오피드연구소, 고

창북고등학교 등을 둘러보며 고창군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고창읍성과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심원 만돌 갯벌체험, 선운산도립공원 등을 둘러보면서 문화·관광의 연계 홍보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창군과 중국 조장시는 2003년 양국 자치단체 간 우호교류 협의회 체결 후 대표축제 상호방문·산업·경제·교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고창군은 학교 간 자매결연 통해 관내 고등학교에서는 중국어학과를 개설하고 공자의 사상을 배우기 위한 공자학당을 운영 하고 있고, 조장시 정부센터에는 고창군 홍보 책자를 비치해 홍보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정읍시민의 장' 4개 부문 수상자 최종 선정

정읍시는 최근 2019년 정읍시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읍시민의 장 4개 부문에 4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문화장에 김동길(78), 공익장에 황종석(77), 애항장에 김현덕(66), 효열장에 송신자(80) 씨를 2019년 정읍시민의 장 수상자로 선정했다. 정읍시민의 장은 '정읍시민의 장 조례'에 의거 매년 심사 선발하는 정읍시 최고 권위의 상이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0일

간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총 6개 부문에서 15명의 후보자가 접수됐다.

시는 시민의 장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위해 후보자별 공적 내용에 대한 철저한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덕망이 높은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1차 부문별 심사와 2차 전원위원회 심사의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4개 부문, 4명의 수상자를 최종 선발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역사성과 즐거움 모두 잡았다

고창모양성제 성황리에 마무리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민속축제인 '제46회 고창 모양성제'가 전통문화체험 등에서 호평을 이끌어내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지난 8일 고창군은 3일부터 닷새간 열린 '제46회 고창모양성제'가 역사성, 즐거움, 어울림의 주제의식을 축제로 전체에 담아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고창모양성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담성놀이'는 주민과 관광객 1000여명이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성곽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성 밭기 이후에는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강강술래 노래를 부르며 돌면서 하나 된 모습을 연출 해 장관을 이뤘다. 이간에는 청사초롱과 함께 모양성을 밝히며 소원성취 담성놀이에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즐겼다.

올해 처음 진행된 '모양성을 사수하리(공성전)'는 나라와 고을의 안녕을

위한 축성 의미를 되새기며 큰 호응을 얻었다. 결의에 찬 조선군의 훈원과 왜적의 침략, 조선 장수와 왜나라 장수의 마상전투 등이 실감나게 펼쳐지며 남녀노소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여기에 관객이 직접 참여해 성을 타고 오르는 왜군들을 향해 모형돌과 화살을 날리며 굳건하게 성을 지켰다. 왜군이 후퇴하자 "한번도 첫 수도 고창 만세"의 환호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도 했다.

실제 모양성은 1453년(조선 단종 1년) 축성 이후 단 한 번도 왜적의 침략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간 프로그램도 대폭 늘리면서 관람객들의 체류시간이 대폭 길어졌다.

모양성 안에는 형형색색 이간 포토존이 설치돼 모두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사진 찍기 놀이에 여념이 없었다. 소나무 숲에도 은은한 LED등이 설치돼 선선해진 가을 밤 산책을 즐겼고, 평강당 앞에 둘러앉아 영화를 보기도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들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chi Wine

TEL : 063-584-9900  
www.gangsanwine.com